

성격10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 정 윤 민 경 환 김 민 희[†]

서울대학교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본 연구는 성격특질의 위계수준에서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성격10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양상을 파악함으로써 성격10요인의 타당성과 유용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성격의 5요인 및 성격10요인과 네 가지 심리적 적응 지표(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 우울, 불안)의 상관분석 결과 5요인 수준에서는 동일한 요인에 해당하는 각 두 개의 10요인의 상관계수가 서로 상이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인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성격10요인의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네 가지 심리적 적응 지표를 준거변인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관적 안녕감은 철수, 공감, 근면성, 열정, 주장성, 개방성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되었고, 삶의 만족과 우울은 철수와 열정이, 불안은 철수가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주관적 안녕감의 경우, 총 변량 중 66.2%를 성격요인이 설명함으로써 네 가지 심리적 적응 지표 중 성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격10요인 중 철수와 열정 요인은 심리적 적응과 일관적인 결과를 보이는 주요한 예측변인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격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및 정신건강을 예측함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성격10요인이 구조가 성격의 5요인으로는 설명하지 못했던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후속 연구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추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성격, 성격10요인, 심리적 적응,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 불안, 우울

[†] 교신저자 : 김민희,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366
Tel : 02-584-6857, E-mail : pseudo@kcgu.ac.kr

최근 행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한 대형서점의 경우 2012년 6월 기준으로 행복 관련 서적 6560권을 판매하고 있었으며 이 중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도 부지기수이다(매일경제, 2012. 7. 9). 이처럼 행복 관련 서적이 다수 출간되는 추세는 삶이 각박해질수록 행복에 대한 관심은 자연히 높아진다는 측면에서 현재 한국인의 삶이 각박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행복지수 조사 결과 한국인의 행복지수는 전체 34개 국가 중 32위로 나타났다(조선일보, 2012. 7. 11).

최하위권을 맴도는 행복지수와는 달리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이다. 통계청(2011)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의 자살자 수는 15,566명으로 이는 1일 평균 42.6명, 즉 34분에 1명꼴로 자살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 자살 급증이 중요한 사회 문제가 된 배경과 원인은 복합적이겠지만, 정신의학 분야에서는 최근의 자살 급증을 현대 사회에 만연한 우울증 등의 정신병리와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배준성, 허태균, 2010). 실제로 2012년 2월 서울시 정신보건센터가 발표한 자료에서는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 시도자 중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30%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12. 7. 29). 2010년 3,64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43%가 인간관계로 고통 받고 있다고 응답(데이터뉴스, 2011. 1. 6)할 만큼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아예 스스로 인간관계를 끊어내고 사회적 접촉을 차단하는 ‘은둔형 외톨이’도 2000년대 이후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런 현상은 급증하는 우울증과 무관하지 않다(헤럴드경제, 2012. 10. 23). 또한 빠른 사회 변화에 적

응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현대인들은 병적인 불안으로 심리적 고통을 느끼거나 현실 적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범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등 현실적으로 위험이 없는데도 병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의 유병률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메디컬 투데이, 2012. 5. 16).

이처럼 한국인의 정신건강과 심리적 적응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심리적 웰빙(well-being)에 대한 관심 또한 늘어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신적 고통이 생기는 이유, 정신적 고통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삶의 조건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행복에 대한 연구는 1998년 Seligman이 긍정심리학을 주창하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행복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일상적 용어이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은 보다 구체적인 의미를 지닌 ‘주관적 안녕(subjective well-be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주관적 안녕은 개인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하며,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 또는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권석만, 2008, p.49).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사람의 특징에 대한 선행 연구의 공통된 견해는 인구학적 변인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약하다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연령, 성별, 수입, 인종, 교육, 결혼상태 등은 주관적 안녕감의 개인차를 단지 10% 내외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Diener, 1984; 구재선, 서은국, 2011에서 재인용). Diener와 Larsen(1984)의 연구에서 성격

변인이 주관적 안녕감의 개인차를 52%나 설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격 이외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볼 수 있다(구재선, 서은국, 2011).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는 일반 성인 집단에서 나타나는 정신장애 중 가장 흔하다. 최근 20년 간 미국에서 행해진 연구에서는 우울장애의 평생유병률이 17%, 불안장애의 평생유병률이 29% 정도로 조사되어 이들이 가장 빈번하게 관찰되는 정신장애인 것으로 나타났다(Kessler, Berglund et al., 2005; Kotov, Gamez, Schmidt, Watson, 2010에서 재인용). 정신장애를 이해하는 통합적 이론인 취약성-스트레스 모델(vulnerability-stress model)은 정신장애의 유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요인, 즉 환경으로부터 주어지는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와 그에 대응하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권석만, 2008, p.99).

취약성은 특정 장애에 걸리기 쉬운 개인적 특성을 의미하는데, 유전적 소인을 비롯하여 환경과의 상호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된 성격과 같은 심리적 특성을 모두 포함한다. 한편 심리사회적 스트레스는 가족의 사망, 실직, 실연, 질병과 같이 개인의 인생에 갑작스레 찾아드는 크고 작은 사건으로 구성되는데, 이와 같은 스트레스 사건에 적응적으로 대처하지 아니면 스트레스가 촉발요인이 되어 심리장애로 발전될 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개인의 취약성이다.

따라서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경험한 사건과 사회구조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는 동시에 성격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도 이해해야 한다.

성격과 심리적 적응

성격특질 구조는 Allport(1961)의 특질 개념에서 출발하여 Cartell(1965)의 16PF(16 Personality Factor), Eysenck(1970)의 세 가지 성격 유형 차원(외향성, 신경증성향, 정신병 성향)까지 다양하게 제시되어 왔지만, 최근의 성격 연구에서는 성격의 5요인 모형(Big Five)이 보편적인 틀이라 할 수 있다. 성격의 5요인 모형은 성격을 기술하기 위해 사용되는 어휘들을 분석하여 성격특질의 기본 단위로 외향성(Extraversion), 우호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신경증성향(Neuroticism),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의 다섯 가지 특질 요인을 규명하였으며, 이러한 5요인 구조는 여러 연구에서 반복검증되고 다양한 문화권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다(민경환, 2002).

여러 연구를 통해 성격특질은 주관적 안녕감, 우울, 불안과 같이 정신건강과 심리적 적응상태를 나타내는 변인들과 강한 연관성을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Diener(1998: 민경환, 2002에서 재인용)는 성격이 주관적 안녕감의 가장 큰 결정요인이라고 주장했으며, 많은 연구를 통해 성격특질 중 주관적 안녕감과 가장 강한 연관을 가지는 것은 외향성과 신경증성향이 밝혀졌다(Costa & McCrae, 1980; Diener, Sandvik, Pavot, & Fujita, 1992; Fujita, 1991). 구체적으로 높은 외향성과 낮은 신경증성향을 가진 사람들일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았다. 신경증성향은 부정 사고와 정서를 경험하는 광범위한 경향성을 의미하기 때문에(민경환, 2002, p.255) 높은 신경증성향이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예측할 수 있다. 외향성의 경우에는 그 구성요

소인 사교성(권석만, 2008, p.115)이나 긍정적 보상에 대한 민감성(Larsen & Ketelaar, 1991: 권석만, 2008에서 재인용)등이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과 성격특질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9; 이인혜, 1997; 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7; 장휘숙, 2009). 한편 성실성, 우호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특질은 외향성과 신경증성향처럼 일관적이고 강력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주관적 안녕감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인다. 특히 세 가지 성격 요인 중에서는 성실성이 주관적 안녕감을 가장 잘 예언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Hayes & Joseph, 2003; Weiss, Bates & Luciano, 2008). 주관적 안녕감 관련 변수와 성격 5요인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한 Steel, Schmidt와 Schultz(2008)의 연구에서는 성격5요인이 주관적 안녕감 변량의 39-63%를 설명한다는 결론을 얻어 주관적 안녕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성격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성격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에도 영향을 미친다(Klein, Kotov, & Bufferd, 2011). 우울, 불안과 강한 연관성을 보이는 성격 특질 역시 외향성과 신경증성향이라는 점이 여러 연구의 공통된 결과이다(Clark & Watson, 1999: Gershuny & Sher, 1998에서 재인용). Eysenck는 내향적이고 신경증성향이 높은 사람이 우울과 불안에 노출되기 쉬운 것은 이들이 보상의 단서보다는 처벌의 단서에 보다 민감하고 스트레스에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1957: Gershuny & Sher, 1998에서 재인용). Gershuny와 Sher(1998)가 수행한 종단연구에서는 이 두 특질의 상호작용이 3년 후의 불안과 우울 수준을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Kotov 등(2010)은 우울, 불안, 약물장애와 성격의 관련성에 대한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주요우울장애는 신경증성향, 성실성과의 관련성이 가장 큰 반면 외향성과의 연관성은 크지 않았고, 우호성 및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의 관련성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장애의 경우 외향성, 신경증성향, 성실성과의 관련성이 유의미하였다. 또한 성격특질이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노년기의 우울과 성격5요인의 관계를 탐색한 연구(Steunenbergh, Braam, Beekman, Deeg, & Kerkhof, 2009)에서는 성별에 관계없이 높은 신경증성향이 우울증의 재발과 관련되어 있었다. 또한 국내에서 대학 4학년생을 대상으로 취업스트레스, 정신건강과 성격특질의 관계를 분석한 신현규와 장재윤(2003)의 연구에서는 신경증성향이 높고 외향성, 우호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낮을수록 우울, 불안, 전반적인 적응력 등 정신건강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보였다.

성격10요인: 새로운 성격특질 차원

성격 특질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두 개의 위계 수준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져 왔다. 첫 번째 수준은 흔히 Big Five로 대표되는 성격의 5요인(domain)이고, 두 번째 수준은 성격의 5요인의 하위요인(facet)들이다. 예를 들어 Costa와 McCrae(1992)는 5개의 성격요인이 각 6개의 하위요인들을 가지며 따라서 총 30개의 하위요인이 있다고 제안하였다(Deyoung, Quilty, & Peterson, 2007). 최근 Deyoung, Quilty와 Peterson(2007)은 성격의 5요인과 30개의 하위요인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수준의 성격요인

표 1. 성격5요인 하위 10개 성격특질차원의 구분

신경증성향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불안정성 (volatility)	공감 (comassion)	근면성 (industriousness)	열정 (enthusiasm)	지성 (intellect)
철회 (withdrawal)	배려 (politeness)	계획성 (orderliness)	주장성 (assertiveness)	개방성 (openness)

(aspect)에 대해 연구하였다.¹⁾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연구자들은 5개의 성격요인을 각각 두 개의 중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르면 신경증성향은 ‘불안정성’(volatility)과 ‘철회’(withdrawal)로, 우호성은 ‘공감’(compassion)과 ‘배려’(politeness)로, 성실성은 ‘근면성’(industriousness)과 ‘계획성’(orderliness)으로, 외향성은 ‘열정’(enthusiasm)과 ‘주장성’(assertiveness)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지성’(intellect)과 ‘개방성’(openness)으로 구분된다. 또한 연구자들은 성격의 5요인을 측정하는 척도문항들(NEO-PI-R, AB5C-IPIP)에 기초하여 10가지 중간요인을 측정하는 100개 문항으로 구성된 BFAS(Big Five Aspect Scale)를 개발하였다.

DeYoung 등은 다양한 성격 측정도구를 종합하여 각 성격요인(domain)당 15개씩, 총 75개의 하위요인(facet)들을 요인분석한 결과 기존의 성격5요인이 각각 서로 상관이 있지만 구별되는 하위 두 개 요인으로 나눌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성격의 10요인(Big Five Aspect)으로 부를 수 있는 이 성격특질 차원은 유전적 요인 점수와의 상관관계를 통해 유전적 기반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Deyoung, Quilty, &

Peterson, 2007).

10개의 중간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신경증성향은 불안정성과 철회로 구분되는데, 이들은 각각 문제의 표면화 또는 내면화 경향을 반영한다. 분노를 수반하는 적대감이나 충동성은 부정적인 정서를 외부로 표출하는 탈억제의 문제를 시사하므로 불안정성은 정서적인 불안성, 과민, 정서적 충동을 조절하는 것의 어려움 등을 모두 아우른다. 반면에 우울, 불안, 상처받기 쉬움(vulnerability) 등은 부정적인 정서가 내부로 향하는 억제의 문제를 시사하며(Krueger, 1999), 철회는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민감성을 나타낸다. 우호성의 두 가지 중간요인은 공감능력/정서적 소속감, 그리고 타인의 요구에 대한 이성적인 존중이다. 성실성은 근면성실함과 계획적인 면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Roberts 등(2005)이 성실성 특질의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외향성에는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과 사회성의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DeYoung 등(2007)은 이 요인들을 각각 주장성과 열정이라고 이름 붙였다. 연구자들이 사회성, 사교성 대신 열정이란 요인명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회적인 특질 외에도 외향성의 주요한 특징인 긍정 정서의 경험, 보상에 따른 기대와

1) domain, aspect, facet이라는 용어들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성격특질의 위계 수준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이를 각각 요인, 중간요인, 하위요인으로 표현하였다.

즐거움의 추구(Depue & Collins, 1999; Lucas, Diener, Grob, Suh & Shao, 2000)를 포함하기 위해서이다. 마지막으로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지성과 개방성이라는 중간요인으로 구분되는데 이는 DeYoung 등(2007)의 연구뿐만 아니라 성격특질에 관해 다른 다른 연구에서도 일관적으로 지적된 구분점이다(DeYoung, Peterson, & Higgins, 2005; Johnson, 1994).

성격이 심리적 적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은 다수의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졌지만, 이들 연구의 대부분은 성격의 5요인 구조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Klein et al, 2011; Steel & Peers, 2008). 또한 일부 연구는 성격의 5요인의 하위요인을 이용하기도 하였다(Quevedo & Abella, 2010). Costa 와 McCrae(1992)가 제안한 30개의 하위요인은 성격5요인 모델의 효율성, 함축성으로 인해 미처 설명할 수 없었던 정보를 구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그 개수가 너무 많아 설명의 절약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중간 수준의 성격특질인 성격10요인이 구체적이면서 너무 복잡하지는 않은 성격 프로파일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활용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서 하위요인의 수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고 심리적 구성개념에 대해 개관하거나 성격의 5요인에서 도출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한 쌍의 조합에서 체계적으로 샘플링 하는 등 다양한 접근 방법에 의해 각기 다른 하위요인이 제안되었기 때문에(Weisbert, DeYoung, & Hirsh, 2011), 존재하는 하위요인 모델들을 통합할 수 있는 분류체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만약 성격의 5요인이 성격위계 상에서 여러 하위요인 바로 위의 수준에 존재한다면 하위요인들의 공변량을 설명하는 데 단 하나의 요

인만 필요할 텐데, Jang, Livesley, Angleitner, Reimann과 Vernon(2002)의 대규모 행동유전 연구에서 각 성격5요인의 하위요인들의 공변량을 설명하는데 두 개의 구분되는 요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다(Weisbert, DeYoung, & Hirsh, 2011), 총 10개의 중간요인은 유전적으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성격10요인과 이를 측정하는 척도(BFAS: Big Five Aspect Scale)가 비교적 최근에 타당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연구는 성격10요인의 성차를 탐색하거나(Weisbert, DeYoung, & Hirsh, 2011) 창의적인 행동과 성과를 종속변수로 하여 지성과 개방성의 영향을 본 것(Nusbaum & Silvia, 2011)이 전부이며,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실시된 바 없다. 따라서 성격10요인을 사용하여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를 탐색한다면 성격과 적응의 관계를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새로운 성격특질 차원인 성격10요인은 기존에 성격의 5요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연구의 결과를 재해석하고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격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음에도 외향성과 신경증성향을 제외한 나머지 세 요인과 적응의 관계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일관적이지 않다. 심리적 적응 지표에 대한 성실성, 우호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요인의 영향력이 유의미하지 않았거나 연구마다 불일치했던 이유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연구도구로 성격의 5요인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위계적으로 구성되는 성격특질의 특성상 보다 구체적이고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특질들이 성격의 5요인과 같은 상위

수준의 요인으로 묶임으로써 성격의 5요인은 성격특질들 사이의 차이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Weisbert et al., 2011). 즉, 성격5요인은 성격차원들을 효율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한편으로 성격에 대해 지나치게 단순화함으로써 성격을 기술할 때 일부 정보를 손실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성격특질과 임의의 변인과의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면 그것이 실제로 관련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성격특질의 하위에 있는 두 개의 중간요인의 상관이 상쇄되어 표면적으로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성격10요인을 사용하면 성격5요인을 통해서 파악할 수 없었던 요인 내의 상이한 패턴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얻음으로써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정교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성격10요인의 활용 가능성을 심리적 적응 지표와의 관계를 통해서 탐색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특질과 심리적 적응 지표인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 우울, 불안과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성격의 5요인분석과 10요인분석의 차이를 확인하고 성격10요인이 성격과 심리적 적응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정교한 설명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교에서 심리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부생 240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이 중 남자가 112명, 여자가 128명이었으며, 연령범위는 만 17세에서 30세였고 연령 평균은 20.59세($SD=2.14$)였다. 설문에 응답하기 전 참가자들에게 연구의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를 구했으며, 연구에 참가한 학생들에게는 수업에서 가산점이 주어졌다. 질문지는 실험실에서 진행되었고 한 번에 2-3명의 참가자씩 연구자의 지시를 받고 질문지를 실시했다. 설문 작성에 걸린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측정 도구

성격

성격 10요인 척도(Big Five Aspect Scale):

DeYoung 등(2007)이 개발한 BFAS를 이정윤(2012)이 번역 및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10개 요인별로 각 10문항씩, 총 10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요인의 문항 예를 살펴보면, 불안정성은 ‘쉽게 화가 난다.’, ‘내 감정을 잘 통제한다.(역문항)’, ‘철수는 ‘쉽게 낙담한다.’, ‘많은 것들에 대해 겁이 난다.’, 공감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가진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동감한다.’, 배려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취한다.(역문항)’, 근면성은 ‘시작한 일을 끝낸다.’, ‘일을 시작하기 힘들다(역문항).’, 계획성은 ‘정리정돈을 좋아한다.’, ‘규칙이 준수되도록 신경을 쓴다.’, 열정은 ‘쉽게 친구를 사귄다.’, ‘많이 웃는다.’, 주장성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도록

설득할 수 있다.’,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을 망설인다(역문항).’, 지성은 ‘복잡한 문제를 푸는 것을 좋아한다.’, ‘문제를 재빨리 이해한다.’, 개방성은 ‘예술의 중요성을 믿는다.’, ‘남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사물의 아름다움을 본다.’ 등이 있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이 각 문항에 해당되는 정도를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를 요인 별로 살펴보면 불안정성 .86, 철수 .84, 공감 .84, 배려 .73, 근면성 .87, 계획성 .76, 열정 .84, 주장성 .88, 지성 .83, 개방성 .81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적응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의미하는 주관적 안녕감과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인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부정적인 심리적 적응 상태를 측정하기 위해 부정적 정신건강을 반영하는 지표인 우울과 불안을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척도는 다음과 같다.

삶의 만족도 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SWLS는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1985)이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기보고형 척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안신능(2006)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도록 하였으며, 문항 예는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내 삶의 조건들은 아주 훌륭하다.’ 등과 같다. 총 다섯 문항으로 구성된 간단한 척도이지만 신뢰도와 타당도가 잘

입증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86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 척도(Subjective Well-Being):

Ryff(1989)의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being)를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2001)가 타당화한 척도의 축약판을 사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여러 주관적 안녕감 척도들과 유의한 정도의 상관을 보이며, 요인분석 결과 기존 주관적 안녕감 척도에 비해 주관적 삶의 질을 보다 포괄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김명소 등, 2001) 이 척도를 사용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척도는 자아 수용,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자율성, 환경에 대한 지배감, 인생의 목표, 개인적 성장의 6가지 하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8문항이다. 문항 예는 ‘내 성격의 거의 모든 면을 좋아한다.’, ‘살아온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현재의 결과에 만족한다.’ 등과 같다. 참가자들은 자신이 각 문항에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5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다) 상에서 평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는 .83이었다.

한국판 Beck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 Beck, Brown, Epstein 및 Steer(1988)가 개발한 불안증상을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총 21문항을 4점 척도(0점: 전혀 그렇지 않다, 3점: 거의 항상 그렇다)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문항 예는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을 느낀다.’, ‘안절부절 못해 한다.’ 등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Kwon(1992)이 타당화한 한국판 Beck 불안 척도를 사용하였고, 내적 합치도는 .87로 나타났다.

한국판 CES-D(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 CES-D): Radloff(1997)가 우울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를 바탕으로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개발한 통합적 한국어판 CES-D를 사용하였다. 우울과 관련된 행동, 신체, 인지 증상을 포함하는 20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척도(0점: 극히 드물게, 3점: 거의 대부분) 상에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문항 예는 ‘내 인생은 실패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상에 홀로 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등과 같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2로 나타났다.

결 과

성격10요인 척도(BFAS)를 5요인과 10요인으로 분석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신뢰도를 구하였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의 각 요인 별 신뢰도(α)는 성격10요인에서 .73-.88으로 양호하였다. 즉, 성격의 각 요인에 속

한 문항들이 해당 요인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성격10요인과 심리적 적응과의 상관

다음으로 성격의 5요인, 성격10요인과 심리적 적응 지표인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 불안, 우울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긍정적 심리적 적응인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은 성격의 5요인과 동일한 양상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은 신경증성향($r = -.48$)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우호성($r = .33$), 성실성($r = .49$), 외향성($r = .72$), 경험에 대한 개방성($r = .43$)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삶의 만족 역시 신경증성향($r = -.37$)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우호성($r = .13$), 성실성($r = .32$), 외향성($r = .42$), 경험에 대한 개방성($r = .25$)과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 결과는 심리적 적응과 성격특질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이

표 2. BFAS를 이용한 성격5요인과 성격10요인의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성격5요인	평균(표준편차)	신뢰도(α)	성격10요인	평균(표준편차)	신뢰도(α)
신경증성향	2.77(.55)	.88	불안정성	2.80(.66)	.86
우호성	3.70(.40)	.82	철수	2.74(.64)	.84
성실성	3.27(.50)	.84	공감	3.69(.56)	.84
외향성	3.22(.52)	.90	배려	3.72(.45)	.73
경험에 대한 개방성	3.54(.52)	.85	근면성	3.25(.65)	.87
			계획성	3.29(.57)	.76
			열정	3.29(.63)	.84
			주장성	3.14(.67)	.88
			지성	3.38(.64)	.83
			개방성	3.70(.61)	.81

표 3. 성격 요인과 심리적 적응과의 상관분석 결과

성격5요인	SWB	SWLS	BAI	CESD	성격10요인	SWB	SWLS	BAI	CESD
신경증성향	-.48**	-.37**	.52**	.57**	불안정성	-.27**	-.19**	.37**	.32**
					철수	-.56**	-.44**	.53**	.65**
우호성	.33**	.13*	-.20**	-.14*	공감	.43**	.17**	-.15*	-.16*
					배려	.06	.03	-.17**	-.06
성실성	.49**	.32**	-.22**	-.30**	근면성	.61**	.39**	-.31**	-.42**
					계획성	.17**	.11	-.03	-.04
외향성	.72**	.42**	-.27**	-.47**	열정	.62**	.40**	-.27**	-.47**
					주장성	.64**	.33**	-.22**	-.36**
경험에 대한 개방성	.43**	.25**	-.05	-.18**	지성	.45**	.26**	-.11	-.25**
					개방성	.27**	.13*	.02	-.05

주. SWB= 주관적안녕감, SWLS= 삶의 만족도, BAI= 불안, CESD= 우울, * $p < .05$, ** $p < .01$

다. 반면 부정적 심리적 적응 지표인 불안과 우울은 이와 정반대의 양상을 보였다. 불안은 신경증성향과 ($r = .52$)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우호성($r = -.20$), 성실성($r = -.22$), 외향성($r = -.27$)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상관이 없었다. 우울은 신경증성향과 ($r = .57$)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우호성($r = -.14$), 성실성($r = -.30$), 외향성($r = -.47$), 경험에 대한 개방성($r = -.18$)과는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요약하면 성격의 5요인은 전반적으로 심리적 적응 지표와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이 중에서 외향성, 신경증성향과의 상관계수가 다른 성격요인들과의 상관계수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격의 5요인을 10요인으로 나누어서 심리적 적응과의 상관을 보면 다소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같은 상위요인에 묶이는 한 쌍의 중간요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유의미하게 차이나거나, 두 개의 중간요인 중에

하나의 요인만이 심리적 적응과 상관을 보이기도 했다. 즉, 성격특질을 10요인으로 분석하면 5요인으로 분석했을 때에는 그 효과가 상쇄되어 나타나지 않았던 주요한 성격특질에 대해서 알 수 있었다. 주관적 안녕감의 경우 신경증성향, 성실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하위의 중간요인들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같은 상위 요인에 묶이는 한 쌍의 중간요인들의 상관계수가 모두 $p < .01$ 수준에서 유의한 경우 이들 간의 상관계수 차이가 유의미한지 알아보기 위해 Hotelling의 t 검증 방법에 근거하여 (Hotelling, 1940) 추가적으로 상관계수 차이검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하였다. 한 쌍의 두 중간요인 모두 심리적 적응과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상관계수 값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면 그 역시 중간요인들이 심리적 적응 변인과 차별적인 패턴의 상관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으며

표 4. 두 개 중간요인과 심리적 적응의 상관계수 차이검증 결과

심리적 적응 지표	성격 요인		Difference	t
주관적 안녕감	불안정성	철수	.290	5.190**
	근면성	계획성	.440	7.380***
	열정	주장성	-.020	-.463
	지성	개방성	.180	2.786**
삶의 만족	불안정성	철수	.250	4.128**
	열정	주장성	.070	1.245
불안	불안정성	철수	-.160	-2.837**
	열정	주장성	-.050	-.841
우울	불안정성	철수	-.330	-6.442***
	열정	주장성	-.110	-2.029*

주. Difference= 비교하는 상관계수들의 차이값, * $p < .05$, ** $p < .01$, *** $p < .001$

로 상관계수 값의 차이검증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구체적으로 주관적 안녕감과 상관을 보면, 신경증성향의 중간요인 중에서는 철수($t = 5.190, p < .01$)가, 성실성의 중간요인 중에서는 근면성($t = 7.380, p < .001$)이,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중간요인 중에서는 지성($t = 2.786, p < .01$)의 상관계수가 각각 불안정성, 계획성, 개방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정과 주장성은 두 중간요인 간 유의미한 차이가 없이 비슷한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우호성의 중간요인에서는 공감($r = .43$)만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배려는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이 없었다. 삶의 만족은 신경증성향,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 하위의 중간요인들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는데, 신경증성향의 중간요인에서는 철수($t = 4.128, p < .01$)가,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중간요인에서는 지성($r = .26$)이 상대적으로 큰 상관계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의 중간요인들은 서로 간 유의미한 차

이가 없이 비슷한 정도의 정적 상관을 보였다. 우호성의 중간요인에서는 공감($r = .17$), 성실성의 중간요인에서는 근면성($r = .39$)만이 삶의 만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배려와 계획성은 삶의 만족과 관련이 없었다. 불안은 신경증성향, 우호성, 외향성 하위의 중간요인들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간요인들 간 상관계수 차이 검증 결과 신경증성향의 중간요인 중에서는 철수가 불안정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t = -2.837, p < .01$) 외향성의 중간요인인 열정과 주장성은 비슷하게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 우호성의 중간요인 중에서는 배려($r = -.17$)가 더 높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성실성의 중간요인 중에서는 근면성($r = -.31$)만이 불안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고, 배려, 지성, 개방성 요인은 불안과 상관이 없었다. 우울은 신경증성향, 외향성의 중간요인들과 모두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중간요

인들 간 상관계수 차이 검증 결과 신경증성향의 중간요인 중에서는 철수가 불안정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t = -6.442, p < .001$) 외향성의 중간요인 중에서는 열정이 주장성에 비해 높은 수준의 부적 상관을 보였다($t = -2.029, p < .05$). 기타 성격 특질 중에서는 공감($r = -.16$), 근면성($r = -.42$), 지성($r = -.25$)만 우울과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높은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를 잘 경험하지 않으며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이 뛰어나고 근면성실하다. 또한 긍정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도적인 면을 나타내며 지적인 활동에도 흥미를 가진다. 반면에 높은 우울과 불안 수준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고와 정서를 쉽게 경험하는데, 이를 조절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부정적인 감정에 매우 민감하다. 타인의 감정에 잘 공

감하지 못하며 근면하지 않고, 긍정적인 정서를 잘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과도 거리가 멀다. 추가로 불안 수준이 높은 경우 타인을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우울 수준이 높은 경우 지적인 활동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요약하면 성격10요인 중 심리적 적응 지표와 대체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인 중간요인은 불안정성, 철수, 공감, 근면성, 열정, 주장성, 지성이었다. 그러나 상관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변인들 간의 관련성 정도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서는 심리적 적응 지표에 대한 성격10요인의 예측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격10요인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 불안, 우울의 네 가지 심리적 적응 지표에 대한 성격10요인의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표 5. 성격10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

변인	V1	V2	V3	V4	V5	V6	V7	V8	V9	V10
V1	1.00									
V2	.46**	1.00								
V3	-.10	-.14*	1.00							
V4	-.32**	-.12	.26**	1.00						
V5	-.34**	-.47**	.24**	-.01	1.00					
V6	-.09	.01	.10	.01	.33**	1.00				
V7	-.03	-.49**	.42**	.06	.35**	-.01	1.00			
V8	-.14*	-.41**	.24**	-.31**	.52**	.13*	.54**	1.00		
V9	-.20**	-.24**	.23**	-.20**	.47**	.10	.23**	.55**	1.00	
V10	.03	.09	.28**	-.05	.20**	.08	.11	.24**	.37**	1.00

주. V1=불안정성, V2=철수, V3=공감, V4=배려, V5=근면성, V6=계획성, V7=열정, V8=주장성, V9=지성, V10=개방성, * $p < .05$, ** $p < .01$

회귀 분석에 앞서 독립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진단하기 위하여 표 5와 같이 성격10요인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변인 간 상관이 .7 이상일 때 다중공선성이 있다고 진단하는데, 상관 분석 결과 성격10요인 간 상관계수의 절대값 중 가장 큰 값이 .55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엄격한 분석을 위해 공차한계(TOL)와 분산팽창요인(VIF)를 확인하였다. 일반적으로 공차한계는 .10 이하, 분산팽창요인은 10 이상일 경우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진단하는데, 10가지 예언변인들의 공차한계는 .10 보다는 크고 분산팽창요인은 10 보다 작았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의 문

표 6. 주관적 안녕감과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성격10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언변인	B	β	t
주관적 안녕감	불안정성	-.010	-.014	-.291
	철수	-.155	-.206	-3.714***
	공감	.101	.119	2.538*
	배려	.080	.076	1.548
	근면성	.147	.201	3.746***
	계획성	.042	.050	1.188
	열정	.178	.236	4.183***
	주장성	.178	.249	4.089***
	지성	.042	.056	1.100
	개방성	.081	.105	2.389*
F= 44.802*** R ² = .662				
종속변인	예언변인	B	β	t
삶의 만족	불안정성	-.004	-.004	-.053
	철수	-.332	-.288	-3.593***
	공감	-.058	-.044	-.655
	배려	-.016	-.010	-.139
	근면성	.151	.134	1.726
	계획성	.086	.067	1.108
	열정	.271	.234	2.860**
	주장성	-.050	-.046	-.517
	지성	.063	.054	.741
	개방성	.143	.120	1.884
F= 9.420*** R ² = .291				

주. β = 표준화된(standardized) 베타 회귀계수, * p < .05, ** p < .01, *** p < .001

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성격10요인을 모두 회귀 분석에 포함시켰다.

성격10요인의 상대적인 영향력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 동시입력방식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성격 전반으로 가장 잘 설명되는 심리적 적응 지표는 주관적 안녕감이었다. 성격

10요인은 주관적 안녕감 변량의 66.2%를 설명하였는데, 10개 중간요인 중 철수($\beta = -.206, p < .001$), 공감($\beta = .119, p < .05$), 근면성($\beta = .201, p < .001$), 열정($\beta = .236, p < .001$), 주장성($\beta = .249, p < .001$), 개방성($\beta = .105, p < .05$)이 주관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했다. 삶의 만족의 경우 변량의 29.1%를 성격10

표 7. 불안과 우울을 예측하는 성격10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예언변인	B	β	t
불안	불안정성	.067	.131	1.863
	철수	.226	.426	5.379***
	공감	-.030	-.050	-.750
	배려	-.045	-.060	-.862
	근면성	-.035	-.068	-.883
	계획성	-.002	-.003	-.045
	열정	-.002	-.004	-.047
	주장성	-.014	-.027	-.314
	지성	.038	.071	.985
	개방성	-.007	-.012	-.199
$F=10.301^{***}$ $R^2 = .310$				
종속변인	예언변인	B	β	t
우울	불안정성	.055	.072	1.173
	철수	.396	.505	7.322***
	공감	.037	.041	.711
	배려	.038	.035	.569
	근면성	-.056	-.074	-1.104
	계획성	-.023	-.026	-.501
	열정	-.179	-.228	-3.242**
	주장성	.038	.052	.680
	지성	-.022	-.028	-.442
	개방성	-.055	-.068	-1.245
$F= 20.768^{***}$ $R^2 = .476$				

주. β = 표준화된(standardized) 베타 회귀계수, * $p < .05$, ** $p < .01$, *** $p < .001$

요인이 설명했고, 철수($\beta = -.288, p < .001$)와 열정($\beta = .234, p < .01$)이 성격10요인 중 유의미하게 삶의 만족을 예측하는 변인이었다. 성격10요인은 불안 변량의 31%를 설명하였고, 이 중 철수($\beta = .426, p < .001$)만 불안을 유의하게 예측했다. 우울 변량은 성격10요인으로 47.6% 설명되었고 철수($\beta = .505, p < .001$)와 열정($\beta = -.228, p < .01$)이 유의미하게 우울을 예측하는 성격특질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성격10요인은 심리적 적응 지표를 약 30-65% 설명함으로써 성격이 심리적 적응의 변량을 최대 63%까지 설명하는 강력한 예측변인이라는 선행연구(Steel et al., 2008)결과를 반복검증하였다.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 불안, 우울에 일관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주는 중간요인은 철수였고, 열정도 불안을 제외한 심리적 적응에 강한 영향을 주는 중간요인이었다. 또한 네 가지 심리적 적응 지표 중 가장 많은 중간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이었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격10요인과 심리적 적응 지표 간의 관계를 탐색함으로써 성격이 개인의 주관적 안녕감 및 정신건강을 예측할 수 있는 강력한 변인이라는 기존 연구 결과를 반복검증하고 이를 성격의 5요인으로 분석했을 때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성격특질차원인 성격10요인을 이용하여 기존의 심리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 성격의 5요인의 효율성으로 인하여 파악하지 못했던 각 요인 내의 차별적인 패턴을 추가적으로 보여줄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먼저 많은 선행연구들(구재선, 서은국, 2011; Gutiérrez, Jiménez, Hernández, & Puente, 2005; Klein et al, 2011; Steel & Peers, 2008)에서와 마찬가지로 성격은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이라는 것이 재확인되었다. 성격의 5요인과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 불안, 우울의 상관분석 결과, 네 가지 심리적 적응 지표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성격 요인들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었다.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은 신경증성향과는 부적 상관을,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고 반대로 부정적인 심리적 적응은 신경증성향과는 정적 상관을, 우호성, 성실성, 외향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는 불안과 경험에 대한 개방성뿐이었다.

그러나 성격10요인과 네 가지 심리적 적응 지표 간의 상관패턴은 성격의 5요인으로 분석했을 때와는 달리 차별적으로 나타났다. 즉, 하나의 성격요인에 속하는 두 개 중간요인이 심리적 적응과 보이는 상관계수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기존 연구에서 외향성, 신경증성향에 가려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우호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중간요인들이 흥미로운 패턴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우호성의 중간요인인 공감과 배려 중 심리적 적응과 유의하게 연관이 있는 중간요인은 공감이었다. 즉, 타인의 감정에 관심을 갖고 공감하는 경향성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느낌을 갖고 낮은 불안과 우울을 경험한다. 타인의 감정을 알아차리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감정을 고려하여 행동하는 경향은 정서지능의 주요한 구성요소

이다(Goleman, 1998). 정서지능과 주관적 안녕감의 연관성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증명되어 왔는데,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일수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다는 이들 연구결과(Gallagher & Vella-Brodrick, 2008; Palmer, Donaldson, & Stough, 2002)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타인의 입장과 요구를 고려하여 이성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성인 배려는 대체로 심리적 안녕과는 연관이 없었으나, 예외적으로 불안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Helgeson(1994)은 타인과의 관계에 집중하고 애착을 형성하는 등 여성성으로 표상되는 친화성(communion)이 심리적, 신체적 안녕감에 필수적이지만, 과도하게 타인 초점적이거나 집단의 화합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경직된 친화성(unmitigated communion)은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저해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자신보다 타인을 중심에 두면서 그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심리적 적응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배려 요인은 긍정적인 심리적 적응 변인과 상관이 없다고 추측할 수 있다.

성실성의 중간요인인 근면성, 계획성 중에서 심리적 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이는 중간요인은 근면성이었고, 계획성은 주관적 안녕감을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근면성, 계획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상관계수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근면성이 계획성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계수를 보였기 때문에 심리적 적응과 강한 연관이 있는 성실성 하위의 중간요인은 근면성이라고 간주해도 무방하다. 계획성이 심리적 적응 전반과 유의미하고 일관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던 이유는 완벽주의 성향과의 관련성에서 생각해볼 수 있다. Slaney, Rice, Mobley, Trippi와 Ashby(2001)가 개발한 완벽성향척도 개정판(APS-R)의 하위척도

에는 높은 기준(high standards), 정돈(order), 불일치(discrepancy)가 있는데, 정돈은 어떤 일련의 과정을 순서에 맞추어 실행하는 것, 규정의 준수, 정리정돈 등을 모두 의미한다는 점에서 계획성 요인과 유사하다. Slaney 등(2001)은 적응적 완벽주의자와 부적응적 완벽주의자가 세 가지 하위척도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는데, 두 집단은 높은 기준과 정돈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불일치에서만 부적응적 완벽주의자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즉, 정돈은 심리적 적응 여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하위척도가 아니었고 이는 본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의 경우 하위의 중간요인인 지성, 개방성 중 지성이 심리적 적응과 보다 높은 상관을 나타냈다.

이를 요약하면, 성격의 5요인의 우호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외향성, 신경증성향과 비교했을 때 심리적 적응과 다소 약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처럼 보이나, 각 성격요인을 중간요인으로 나누면 상관패턴이 분명하게 구분되며 그 중 하나의 중간요인이 외향성, 신경증성향만큼이나 심리적 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즉, 중간요인들끼리의 영향력이 상쇄되어 전체적으로는 영향력이 약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외향성과 신경증성향의 중간요인들은 네 가지 심리적 적응 변인 모두와 유의미하게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이들이 심리적 적응과 연관 있는 가장 강력한 성격특질이라는 선행연구결과(Diener et al., 1992; Headey & Wearing, 1992; Soons & Liefbroer, 2009)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성격10요인을 이용하여 중간수준의 성격특질과 심리적 적응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다른 성격특질에서와 마찬가지로 5개의 요인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상관

양상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신경증성향의 중간요인인 불안정성, 철수와 심리적 적응 변인들의 상관관계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문제를 표면화하는 경향인 불안정성보다는 부정적인 정서에 민감하고 심리적 문제를 내면화하는 경향인 철수가 심리적 건강과 강한 연관성이 있었다. 외향성의 중간요인인 열정, 주장성은 우울과의 상관에서만 열정이 주장성에 비해 큰 부적 상관을 보였고 다른 심리적 적응 변인과의 상관관계수에서는 서로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는 두 중간요인이 심리적 적응과 대체로 동등하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성격10요인이 심리적 적응 지표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네 가지 심리적 적응 지표 중 주관적 안녕감이 가장 많은 수의 중간요인들로 설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철수, 공감, 근면성, 열정, 주장성, 개방성의 여섯 가지 중간요인이 유의미하게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했고, 이들은 주관적 안녕감 전체 변량의 66.2%를 설명함으로써 성격특질이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라는 기존 연구결과(Steel et al., 2008)를 지지하는 동시에 5개의 성격요인 각각의 하위에 존재하는 중간요인별로 차별적인 패턴을 보이며 성격10요인의 유용성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타인과 친밀해지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며 사회적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하는 동시에 타인의 안녕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성향, 계획한 일을 미루지 않고 끝까지 실행하고자 하는 경향성, 그리고 창의적이고 예술에 관심이 있으며 부정적인 정서에 민감하지 않는 것은 주관적 안녕감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성격특질들이었다. 반면 부정적인 정서를 외부로 표출하는 것을 조절하는 능력, 타인의 요구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배려하는 태도, 규칙에 따라 행동하는 성향, 그리고 지적인 활동에 대한 관심은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처럼 모든 성격요인이 주관적 안녕감을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인 하위에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우세한 특정 성격특질이 존재한다는 것은 성격의 5요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미처 알 수 없는 정보이다.

삶의 만족, 불안, 우울의 경우 상대적으로 예측변인의 수가 적었다. 삶의 만족은 철수와 열정이 유의미하게 예측했는데 이는 외향성과 신경증성향이 삶의 만족과 가장 연관된 성격 특질이라는 선행연구(Soons & Liefbroer, 2009)결과와 일치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과 관련이 있는 외향성과 신경증성향의 구체적인 중간요인을 확인하였다. 우울은 철수와 열정이 유의미하게 예측했고, 불안에 대해서는 철수만이 유일한 예측변인이었다. Clark, Watson과 Mineka(1994)의 연구에서는 신경증성향과 부정 정서성이 우울과 불안을 발전시키고 외향성과 긍정 정서성은 우울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이와 일치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종합했을 때 전반적인 심리적 적응 지표에 일관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치는 중간요인은 철수와 열정이었다. 다시 말하면 신경증성향 중에서도 부정적인 정서에 대한 민감성이 낮고, 외향성 중에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경향과 사회성이 높은 개인일수록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고 안녕감을 느끼며 낮은 우울과 불안을 경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감정 표출의 통제

나 자신의 주장을 타인에게 관철시키고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성향은 삶의 만족이나 안녕감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성격10요인을 활용했으며, 이를 통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성격특질의 중요성과 영향을 재검증했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들과 차별화된다. 성격의 5요인은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되면서(John, 1990; Norman, 1963) 성격 연구에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의사소통도구로서 자리매김하였기 때문에 성격과 심리적 적응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성격의 5요인을 사용해왔다(Gutiérrez et al., 2005; Klein et al., 2011; Steel & Peers, 2008). 성격 5요인 하위에 각 6개씩, 총 30개의 특질이 존재하는 하위요인 수준에서도 심리적 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Rector, Bagby, Huta, & Ayearst, in press; Quevedo & Abella, 2010), 이는 5요인 모델이 효율적, 함축적으로 성격특질을 기술하기 때문에 미처 언급할 수 없었던 정보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설명의 절약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이면서도 너무 복잡하지는 않은 성격 프로파일을 제시하는 데 중간 수준인 성격10요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활용가능성에 대해서 탐색해보았다. 그 결과 성격10요인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동시에 5요인으로는 설명하지 못했던 심리적 적응의 원인에 대해서 차별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었다. 하위 요인의 수나 도출 방법의 다양성 때문에 여러 연구에서 비일관적으로 하위요인을 사용해온 것을 감안했을 때, 유전적, 경험적으로 증명된 10개 중간요인은 성격연구와 성격의 위계수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로 기대되며, 그 유용성을 증명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가자들의 연령대가 평균 20세의 대학생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성격특질은 성인기의 여러 연령대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난다는 많은 종단연구결과(McCrae & Costa, 1990)가 있지만, 이들을 메타분석한 결과는 다섯 개의 성격특질이 개인의 인생의 다양한 시점에서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Srivastava, John, Gosling, & Potter, 2003). 평균적으로 우호성과 성실성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승하고, 외향성, 신경증성향, 경험에 대한 개방성 수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발달적 단계에 있는 다양한 연령대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질이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지, 특정 성격특질의 영향력이 연령에 따라 변화가 있는지 등을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성격이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동질적인 네 가지의 지표만을 대상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고, 그로인해 기존의 성격관련 연구들에서 다루었던 다른 중요한 변인들과 성격10요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없었다. 성격특질과 관련된 많은 선행연구들은 직무수행, 직무경험, 직무몰입 등 조직 장면과 연관 있거나(이동훈 외, 2010; Barrick & Mount, 1991; Moscoso & Iglesias, 2009) 학업 수행처럼 교육 장면과 관련된 구성개념들에 대해 다루고 있는데(O'Connor & Paunonen, 2007; Poropat, 2009), 동일한 구성개념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성격특질과의 상관패

턴이 상이했던 연구결과가 상당수 존재했다. 예를 들어, Barrick과 Mount(2007)가 전문직, 경찰, 관리자, 판매자 등 다양한 직업을 대상으로 직무수행과 성격의 관계를 탐색한 메타 연구에서는 직종에 상관없이 직무수행과 연관이 있었던 성격특질은 성실성이라는 결과를 얻었으나, 국내에서 이동훈 등(2010)이 행한 연구에서는 직무수행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은 성실성 외에도 외향성에서 차이가 있었다. 학업 수행과 성격특질의 상관관계를 탐색한 연구들도 불일치하는 결과를 얻었는데, Poropat (2009)의 메타분석 연구에서는 우호성, 성실성, 경험에 대한 개방성이 학업 수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O'Connor와 Paunonen (2007)의 연구에서는 성실성이 학업성취도와 가장 강력하고 일관적인 상관을 보이는 특질이며 경험에 대한 개방성은 상대적으로 다소 약한 상관이 있었고, 외향성은 부적 상관이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 일관적인 결과를 얻지 못했던 변인들을 성격10요인을 적용하여 살펴봄으로써 성격의 5요인으로서는 파악하지 못했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성격 10요인 모델 안에서 통합하여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구재선, 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 143-166.
- 국민일보 (2012. 7. 29). 마음의 감기, 우울증 실태.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서울: 학지사.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 19-39.
- 데이터뉴스 (2011. 1. 6). 직장인, 지난 해 가장 큰 어려움은 인간관계?
- 매일경제 (2012. 7. 9). 행복 관련 책 봇물, 버리고 놓아야 행복하다.
- 메디컬투데이 (2012. 5. 16). 국민 정신질환 평생유병률 27.6%,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아.
- 민경환 (2002). 성격심리학. 서울: 법문사.
- 배준성, 허태균 (2010). 자살보도에 대한 지각과 인식: 사회학습효과의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6, 179-195.
- 서경현, 김정호, 유제민 (2009). 성격과 주관적 웰빙 간의 관계: Big 5성격요인과 BAS/BIS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5, 169-186.
- 신현규, 장재운 (2003). 대학 4학년생의 성격특성과 성별에 따른 취업 스트레스 및 정신건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2, 815-827.
- 안신능 (2006). 자기 개념에 따른 자기 불일치와 삶의 만족도의 인과적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동훈, 정종승, 황운원, 김홍석, 유희정, 주동범 (2010). 조직에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성격5요인 특성의 비교. 직업교육연구, 29, 35-54.
- 이인혜 (1997). 성격, 유쾌한 및 불쾌한 생활경험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NEO 성격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 209-219.
- 이정윤 (2012). 성격10요인 척도의 타당성과 유용성 검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7). 연구논문: 대학 생의 사회적 지원, 성격, 자기효능감, 학업성취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4, 255-283.
- 장휘숙 (2009). 한국 노인의 주관적 건강과 성격특성, 행복 및 죽음태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 23-40.
- 전경구, 최상진, 양병창 (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 59-76.
- 조선일보 (2012. 7. 11). 한국, OECD 행복지수 '뒤에서 3등'.
- 통계청 (2011). 2010년 사망원인통계.
- 헤럴드경제 (2012. 10. 23). 히키코모리.
- Beck, A., Brown, G., Epstein, N., & Steer, R. (199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893-897.
- Clark, L., Watson, D., & Mineka, S. (1994). Temperament, personality, and the mood and anxiety disorder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3, 103-116.
- Costa, P., & McCrae, R. (1980). Still stable after all these years: Personality as a key to some issues in aging. In D. Battles & O. G. Brim(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Vol. III).
- Costa, P., & McCrae, R. (1992). *NEO-PI-R professional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Depue, R., & Collins, P. (1999). Neurobiology of the structure of personality: Dopamine, facilitation of incentive motivation, and extraversion. *Behavioral and Brain Science*, 22, 491-569.
- DeYoung, C., Peterson, J., & Higgins, D. (2005). Sources of Openness/Intellect: Cognitive and neuropsychological correlates of the fifth factor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73, 825-858.
- DeYoung, C., Quilty, L., & Peterson, J. (2007). Between facets and domains: 10 aspects of the Big F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3, 880-896.
- Diener, E., & Larsen, R. (1984). Temporal stability and cross-situational consistency of affective, behavioral, and cognitive respons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871-833.
- Diener, E., Emmons, R., Larsen, R.,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Diener, E., Sandvik, E., Pavot, W., & Fujita, F. (1992). Extraversion and subjective well-being in a U. S. national probability samp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26, 205-215.
- Fujita, F. (1991).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 between extroversion, neuroticism, positive affect, and negative affect*.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Gallagher, E., & Vella-Brodick, D. (2008). Social support and emotional intelligence as predictors of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 1551-1561.
- Gershuny, B., & Sher, K. (1998). The relation between personality and anxiety: Findings from a 3-year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7, 252-262.
- Goleman, D. (1998). *Working with emotional intelligence*. New York: Bantam Books.
- Gutiérrez, J., Jiménez, B., Hernández, E., &

- Puente, C. (2005).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big five correlates and demographic variab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 1561-1569.
- Hayes, N., & Joseph, S. (2003). Big 5 correlates of three measures of subjective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4, 723-727.
- Headey, B., & Wearing, A. (1992). *Understanding happiness: A theory of subjective well-being*. Melbourne, Australia: Longman Cheshire.
- Helgeson, V. (1994). Relation of agency and communion to well-being. Evidence and potential explan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6, 412-428.
- Hotelling, H. (1940). The selection of variates for use in prediction with some comments on the general problem of nuisance parameters. *The Annals of Mathematical Statistics*, 11, 271-283.
- Jang, Livesley, Angleitner, Reimann, & Vernon. (2002).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the covariance of facets defining the domains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83-101.
- John, O. (1990). The "Big Five" factor taxonomy: Dimensions of personality in the natural language and in questionnaire. In L. A. Pervin(Ed.), *Handbook of Personality: Theory and Research* (pp.66-100). New York: Guilford.
- Johnson, J. (1994). Clarification of factor five with the help of the AB5C model.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8, 311-334.
- Klein, D., Kotov, R., & Bufferd, S. (2011). Personality and depression: explanatory models and review of the evidence.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7, 269-295.
- Kotov, R., Gamez, W., Schmidt, F., & Watson, D. (2010). Linking "big" personality traits to anxiety, depressive, and substance use disorders: a meta-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136, 768-821.
- Krueger, R. (1999). The structure of common mental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56, 921-926.
- Kwon, S. (1992). *Differential roles of dysfunctional attitudes and automatic thoughts in depression: An integral model of depression*.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Queensland, Australia.
- Lucas, R., Diener, E., Grob, A., Suh, E., & Shao, L. (2000). Cross-cultural evidence for the fundamental features of extraver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452-468.
- McCrae, R., & Costa, P. (1990). *Personality in adulthood*. New York: The Guildford Press.
- Moscose, S., & Iglesias, M. (2009). Job experience and Big Five personality dimensions. *International Journal of Selection and Assessment*, 17, 239-242.
- Norman, W. (1963). Toward an adequate taxonomy of personality attributes: Replicated factor structure in peer nomination personality rating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6, 574-583.
- Nusbaum, E., & Silvia, P. (2011). Are openness and intellect distinct aspects of openness to experience? a test of the O/I model.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1, 571-574.

- O'Connor, M., & Paunonen, S. (2007). Big Five personality predictors of post-secondary academic performanc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3, 971-990.
- Palmer, B., Donaldson, C., & Stough, C. (2002). Emotional intelligence and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3, 1091-1100.
- Poropat, A. (2009). A meta-analysis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nd academic performance. *Psychological Bulletin*, 135, 322-338.
- Quevedo, R., & Abella, M. (2010). Well-being and personality: Facet-level analys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50, 206-211.
- Radloff, L.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 385-401.
- Rector, N., Bagby, R., Huta, V., & Ayeast, L. (in press). Examination of the trait facets of the five-factor model in discriminating specific mood and anxiety disorders. *Psychiatry Research*.
- Roberts, B., Chernyshenko, O., Stark, S., & Goldberg, L. (2005). The structure of conscientiousness: an empirical investigation based on seven major personality questionnaires. *Personnel Psychology*, 58, 103-109.
- Ryff, C.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Slaney, R., Rice, K., Mobley, M., Trippi, J., & Ashby, J. (2001). The Revised Almost Perfec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34, 130-145.
- Soons, J., & Liefbroer, A. (2009). Patterns of life satisfaction, personality and family transitions in young adulthood. *Advances in Life Course Research*, 14, 87-100.
- Srivastava, S., John, O., Gosling, S., & Potter, J. (2003). Development of personality in early and middle adulthood: set like plaster or persistent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1041-1053.
- Steel, P., Schmidt, J., & Schultz, J. (2008). Ref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34, 138-161.
- Steunenbergh, B., Braam, A., Beekman, A., Deeg, D., & Kerkhof, A. (2009). Evidence for an association of the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with recurrence of depressive symptoms in later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4, 1470-1477.
- Weisbert, Y., DeYoung, C., & Hirsh, J. (2011). Gender differences in personality across the ten aspects of the Big Five. *Frontiers in Psychology*, 2, 1-11.
- Weiss, A., Bates, T., & Luciano, M. (2008). "Happiness is a personality thing: The genetics of personality and well-being in a representative sample". *Psychological Science* 19, 205-210.

논문투고일 : 2012. 9. 10.
1차 심사일 : 2012. 9. 27.
게재확정일 : 2012. 11. 06.

Effects of the Big Five Aspects on Psychological Adjustment

Jung Yun Lee

Kyung Hwan Min

Minhee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Counseling Graduate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Big Five Aspects on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the practical use of the Big Five Aspects in personality studies. Correlations between psychological adjustment(subjective well-being, life satisfaction, anxiety, depression) and the Big Five Aspects were compared to correlations between the Big Five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results showed distinction between two aspects within each of the Big Five that major personality traits that are actually related to psychological adjustment were found. Multiple regressions were used with subjective well-being, life satisfaction, anxiety, and depression as criterion variable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Big Five Aspect on psychological adjustment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ed. Big Five Aspects accounted for 66.2% of the variance in subjective well-being and withdrawal, compassion, industriousness, enthusiasm, assertiveness, openness significantly predicted subjective well-being.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were significantly predicted by withdrawal and enthusiasm. Withdrawal was the only variable that significantly predicted anxiety. Multiple regression also showed that withdrawal and enthusiasm were the most consistent, accountable variables in predicting overall psychological adjustment. This findings indicate that individual's personality trait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edicting subjective well-being and mental health as consistent with past findings, and that the Big Five Aspects can offer more detailed and specific description than the Big Five can. Finally, the research discusses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studies.

Key words : personality, Big Five Aspects, psychological adaptation, subjective well-being, life satisfaction, anxiety, depression